

메타버스,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Metaverse, Changing the Way of Work

이승환 책임연구원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에서 지원받아 제작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개인 견해이며, 본 보고서와 관련한 의문 사항 또는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메타버스 연구팀
이승환 책임연구원 seunghwan.lee@spri.kr

CONTENT

I. 일하는 공간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P.1
-----------------------	-----

II. 메타버스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P.2
-------------------------	-----

1.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
2. 영구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
3. 워케이션의 부상과 메타버스

III. 시사점	P.17
----------	------

참고문헌	P.21
------	------

요 약 문

메타버스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메타버스가 일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본 고에서는 메타버스 관련 일하는 방식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첫째, 실제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 부동산 기업 직방 직원 300명은 2021년 2월부터 전면 메타버스 근무를 시작하였다. 글로벌 부동산 기업 eXp Realty도 모든 직원이 eXp World에서 근무 중이며, eXp Realty는 2022년 글래스도어(Glassdoor)에서 발표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4위를 차지하기도 하였다. 컴투스에는 2,500명의 직원이 생활과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컴투버스(Com2Verse)를 공개하였다. **두 번째**는, 영구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나타나고 있다.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는 영구 재택근무를 허용하였다. 메타의 직원 수는 2021년 3월 기준 60,654명이며, 이들은 전 세계 80개가 넘는 도시에서 근무 중이다. 메타는 메타버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 호라이즌 워크룸(Horizon workroom)을 발표하며 가상에서도 공존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글로벌 컨설팅 회계기업 PwC,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 트위터와 Square 등 다수의 기업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영구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있다. **세 번째**는 워케이션의 부상이다.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오랜 기간 휴가지에 머무르며 일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상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이 등장하고 고도화되면서 워케이션 업무 형태에 주목하고 있다. 업무 생산성 제고, 인재 관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 워케이션이 도입되고 있는데 워케이션으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소속 의식이 증대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워케이션은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워케이션은 침체된 지역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워케이션을 도입하며 상생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메타버스가 일하는 곳으로 진화하며, 영구 재택, 워케이션 등 다양한 방식으로 근무를 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근무 형태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선도와 함께 민관협력, 워케이션 도입 기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활성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Executive Summary

As the conditions for flexible work have been created in the metaverse, overcoming the constraints of time and space, it is attracting attention as a place where metaverse works. In this paper, the changes in the metaverse-related working methods are examined and implications are presented.

The first change is that people who actually go to work on the metaverse are appearing. 300 employees of Jikbang, an internet real estate company, started working on the full metaverse from February 2021. All employees of eXp Reality, a global real estate company, also work in eXp World, and eXp Reality was also ranked 4th in the Top 100 Best Companies to Work For in Glassdoor 2022. Com2uS unveiled Com2Verse, where 2,500 employees can live and work on Metaverse. Second, companies are starting to introduce permanent remote work. Meta changed its name from Facebook, allowing permanent remote work. Meta has 60,654 employees as of March 2021, working in over 80 cities worldwide. By announcing Horizon workroom, a space where you can work in Metaverse, Meta is providing a foundation for working with a sense of coexistence even in virtual environments. A number of companies, including global consulting and accounting firm PwC, online securities trading platform Robinhood, Twitter and Square, are introducing permanent remote work, which allows people to continue working from home even after the coronavirus. The third is the rise of workation. The word "workation" is a compound word of "work" and "vacation" and refers to a form of working while staying on vacation fo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the prolonged COVID-19, the number of virtual working hours has increased, and various metaverse work platforms have emerged and advanced, paying attention to the type of work place work. Workplaces are being introduced to improve work productivity, manage talent, and revitalize regions. It has been shown that workplace productivity is increased, the sense of belonging to a company is increasing, and workplace is also found to have an effect on turnover. In

addition, employment is contributing to revitalizing stagnant regions, and major companies and startups are also looking for ways to coexist by introducing employment.

The implications are as follows. Metaverse is evolving into a place to work, and it is establishing itself as an essential element for working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permanent home and work. Accordingly, companies should identify the pros and cons of working types using Metaverse and seek changes in the way they work. In addition, the government needs to review ways to revitalize the region through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support for companies that introduce employment, along with leading the metaverse ecosystem.

I. 일하는 공간으로 주목받는 메타버스

□ 메타버스가 소통과 게임의 영역을 넘어 일하는 공간으로 진화

- 메타버스는 가상과 현실이 융합된 공간에서 사람·사물이 상호작용하며, 경제·사회·문화적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¹⁾
- 메타버스에서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며,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서, 메타버스가 일하는 곳으로 주목받고 있음
 - 메타버스에서 현실처럼 공존감을 느끼며, 원활하게 소통하고 자료 공유를 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 늘어나고, 시각화 기술이 함께 발전
- 메타버스가 근로자와 기업, 지역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주도
 - (근로자) 일과 가정의 양립, 출퇴근 시간 절약, 제3의 공간에서 업무 가능 등 긍정적 효과가 존재
 - (기업) 임대비용 감소, 해외 우수 인재 유치 등 장점이 존재
 - (지역) 어느 지역에서나 근무할 수 있어 인구 분산 효과가 발생하여 지역 균형발전의 기회가 증대

□ 메타버스 관련, 최근 일어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변화와 주요 특징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

- 모든 직원이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기업과 코로나 이후에도 메타버스에 접속해 계속 근무하는 영구 재택근무 기업들이 등장
- 제3의 장소에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 현상을 분석하고 의미를 제시

* 워케이션은 일(Work)와 휴가(Vacation)의 합성어

1) 범부처(2022),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II. 메타버스 시대, 일하는 방식의 변화

1. 메타버스로 출근하는 사람들

① 직방

- 인터넷 부동산 기업 직방 직원 300명은 2021년 2월부터 전면 메타버스 근무를 시작
 - 강남역에 있는 오프라인 빌딩으로 출근하다가 이제는 직접 지은 가상건물 메타폴리스로 출근

[그림] 직방의 출근지 변화(좌: 강남역 건물 임대, 우: 가상건물 메타폴리스)



* 출처 : <https://career.zigbang.com/work>

- 직원들은 PC로 아바타를 설정하고 메타폴리스에 로그인하여 업무를 수행
 - 가능한 현실과 유사한 공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메타버스를 제작
 - 가상건물 로비도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업무 층에 내리면 회사 동료들이 아바타로 존재
 - 아바타 가까이 가면 얼굴이 보이면서 이야기할 수 있고 멀어지면, 얼굴이 사라지고 소리가 소멸

[그림] 직방 직원들이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모습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XxkWu6wGBs>

□ 메타버스 근무로 인해 직원, 회사의 만족도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 중이며 회사는 메타버스 근무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

○ 직원들은 출퇴근 시간 감소, 제3의 지역에서 근무 가능 등에 대해 만족

- * “지옥철에서의 출퇴근 2~3시간이 감소했어요”
- *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 하며 근무할 수 있어 좋아요”
- *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에서 지내며 근무해 보고 싶어요”

* 출처 : 메타폴리스 근무 관련 주요 언론 인터뷰 종합

- 회사 측면에서는 임대비용을 줄이고, 해외 어느 지역에 있는 인재도 채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회사는 메타버스 근무로 인한 친밀감 저하를 우려하여 1달에 1번은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Meet-up Day를 갖고, 메타버스 접속 여건이 좋지 않은 직원을 위한 공간을 지원
- 지역에 오프라인 직방 라운지를 운영하여 고객과 회의하거나 장소가 필요한 직원이 일 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직방 라운지(좌: 서현역, 우: 당산역)



* 출처: <https://career.zigbang.com/work>

② eXp Reality

- 글로벌 부동산 기업 eXp Reality는 모든 직원이 eXp World에서 근무
 - 2009년에 설립되었으며, 매출은 지속 성장 중이고 2018년에 나스닥에 상장

[그림] eXp Reality 매출 변화



* 출처: eXp Reality(2021), “An Introduction to eXp Reality”

- 전 세계에서 함께 일하는 eXp Reality 소속 부동산 에이전트(Agent) 수는 13개국 이상, 75,000명이며, 메타버스 eXp World에서 함께 업무를 수행

- 직원들은 eXp World를 다운로드 받아 PC로 접속해서 일하고 고객들도 만나며, 메타버스 사무실에서 아바타로 모여서 회의하고, 캠퍼스를 걷거나 자유공간에서 휴식
- 현실처럼 안내해주는 창구도 마련되어 있어 궁금한 사항을 언제든지 물어볼 수도 있으며, eXp Reality 측은 물리적으로 사무실이 있다면 지금 같은 성장은 있을 수 없다고 언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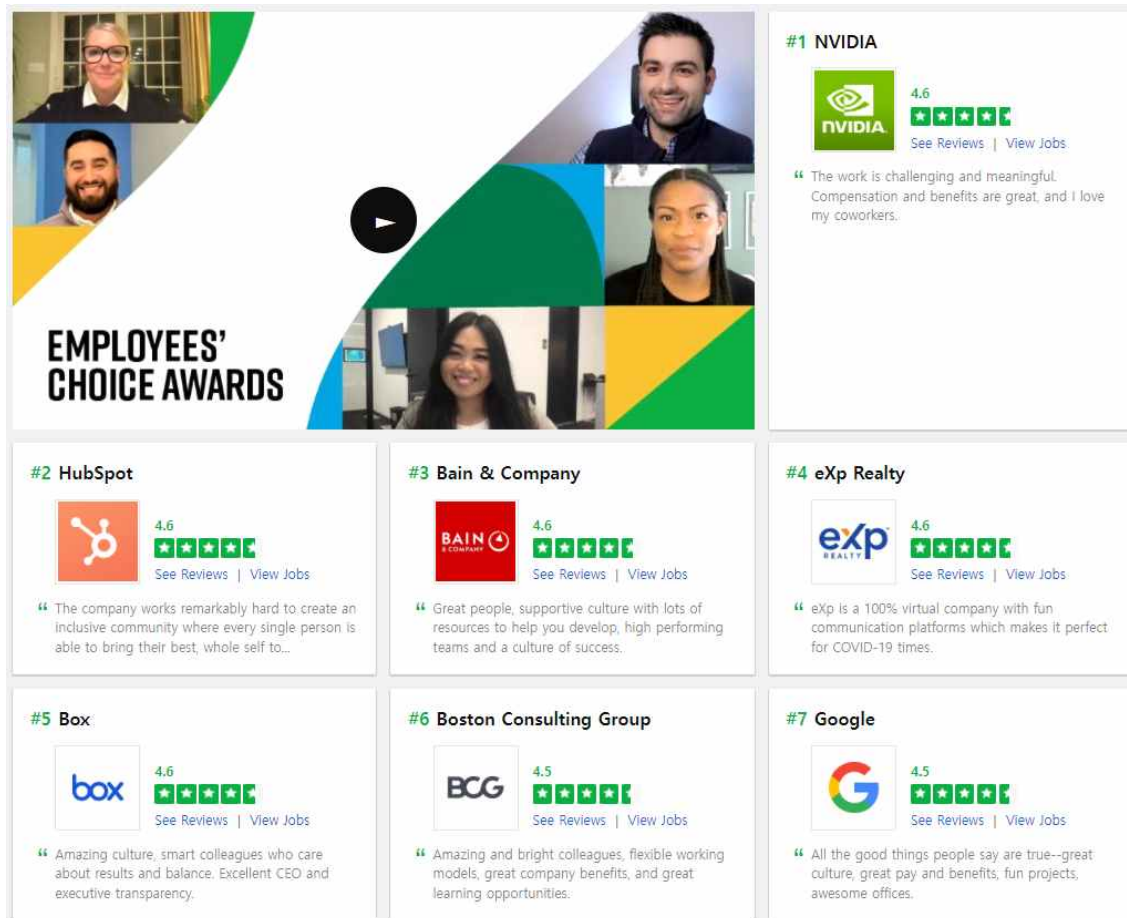
[그림] eXp Reality 직원들이 일하는 eXp World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C_2AJ97rnPw&feature=emb_logo

- eXp Reality는 2022년 글래스도어(Glassdoor)에서 발표한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에서 4위를 차지
 -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1위는 엔비디아가 차지했으며, eXp Reality는 구글을 제치고 4위에 등극
 - 2020년 80위 → 2021년 95위 → 2022년 4위로 최근 순위가 급등

[그림] 가장 일하기 좋은 100대 기업 중 1~7위



* 출처: https://www.glassdoor.com/Award/Best-Places-to-Work-LST_KQ0,19.htm

- 95%가 친구에게 eXp Realty를 추천하겠다고 하였으며, CEO에 대한 평가도 매우 높은 수준

[그림] eXp Realty 추천 및 CEO 평가

eXp Realty Revi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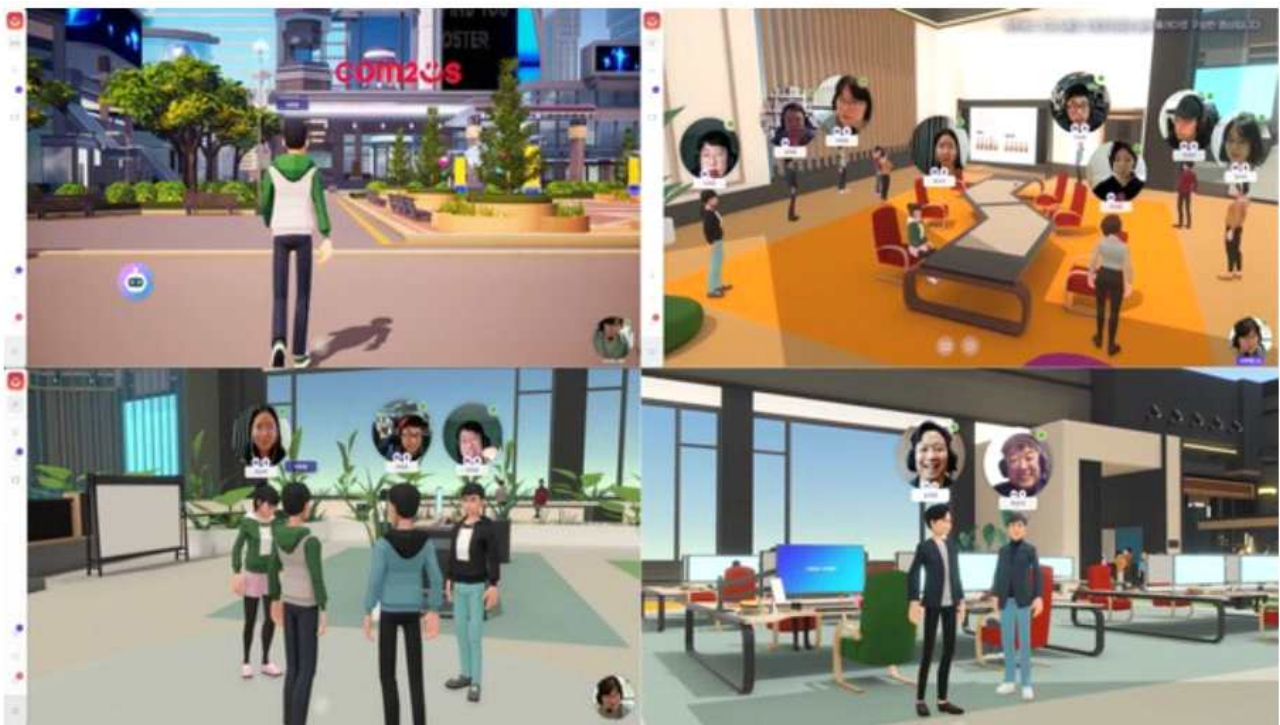


* 출처: https://www.glassdoor.com/Overview/Working-at-eXp-Realty-EL_IE907965.11,21.htm

③ 컴투스

- 컴투스는 생활과 업무를 메타버스에서 할 수 있는 컴투버스(Com2Verse)를 공개
 - 컴투스는 위지웍스튜디오 등 전 그룹사 역량을 결집해 개발 중인 컴투버스를 2021년 12월에 시연하였으며, 일하게 될 모습도 공개
 - 메타버스에서 사회, 문화, 경제생활이 가능하게 제작 중
 - 컴투버스로 출근한 신입사원의 하루를 따라가며, 실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는 일하는 모습과 업무환경을 공개
 - * 출퇴근, 스케줄 관리, 규모별 회의, 프레젠테이션 등 기본 근무 지원은 물론, 근거리 화상 대화 기능 등으로 물리적 거리에 구애받지 않는 메타버스 업무환경을 구성

[그림] 컴투버스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



*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0z2pjTVa5w>

- 2022년 말에 전 직원 2,500명이 메타버스에서 업무를 시작할 계획이며, 다양한 생활공간도 늘어날 전망

④ OCI

- 신재생에너지 기업 OCI는 시공간 제약이 없는 업무환경 지원을 위해 2021년 8월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를 도입²⁾
 - 실제 사무실과 유사한 가상공간에서 직원들이 소통하고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메타버스를 업무 전반에 활용
 - 홍보나 채용 등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메타버스를 시스템화
 -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메타버스 근무 도입을 검토하고 실행

- * “내부 설문조사를 통해 재택근무 시 소외감이나 불안감 등의 의견을 확인했고 경영진이 먼저 메타버스 가상 오피스에 시범 참여해 (도입 효과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다”
- * “장년층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리버스 멘토링 차원에서 부서별로 전담자를 지정했다”

* 출처: 매일경제(2021.12.21.), “대기업 최초로...OCI, 메타버스 사무실 도입”

2. 영구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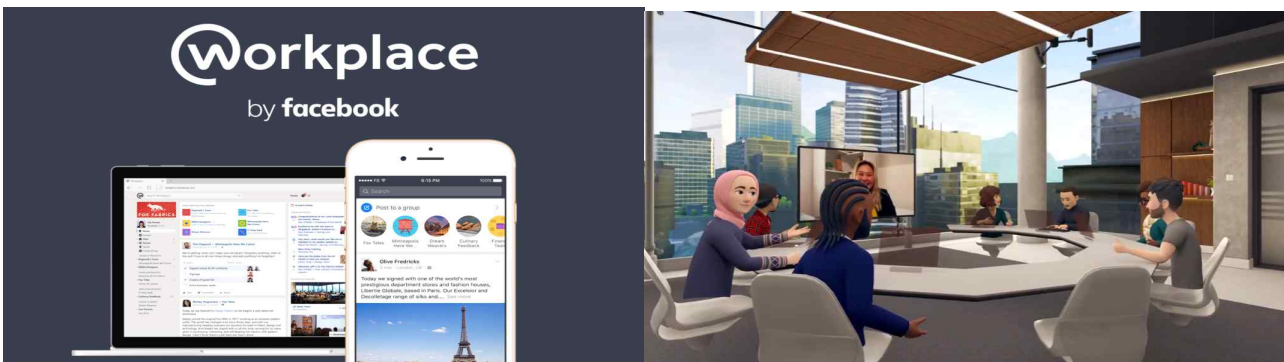
① 메타(Meta)

- 페이스북에서 사명을 바꾼 메타는 영구 재택근무를 허용
 - 메타의 직원 수는 2021년 3월 기준 60,654명이며, 이들은 전 세계 80개가 넘는 도시에서 근무 중
 - 메타는 2021년 6월에 코로나와 상관없이 직원들이 계속 재택근무 할 수 있는 영구 재택근무를 허용한다고 발표
- 메타는 메타버스에서 일할 수 있는 공간, 호라이즌 워크룸을 발표
 - 메타 직원들은 기존에 메타에서 개발한 Work place를 활용해서 업무를 수행

2) 매일경제(2021.12.21.), “대기업 최초로...OCI, 메타버스 사무실 도입”

- 줌(Zoom)과 유사한 서비스로 음성, 텍스트, 이미지, 영상으로 구성된 업무 프로그램
- 메타는 일하는 메타버스 공간, 호라이즌 워크룸(Horizon workroom)을 공개
- VR HMD(Head Mount Display) 메타 퀘스트로 접속하면, 직원들은 각자 자신의 아바타로 가상회의실 테이블에 앉아 참석자들과 소통하며 업무를 수행

[그림] 메타의 일하는 공간의 변화(좌: Workplace, 우: 호라이즌 워크룸)



* 출처: <https://www.oculus.com/workrooms/features/>

- BYOD(Bring Your Own Desk)라는 기능으로 현실의 책상을 메타버스 공간으로 가져오도록 하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
- 가상공간에서 현실의 책상에 편안하게 앉은 상태로 몰입감 넘치는 경험을 즐길 수 있도록 재택근무 사무실과 메타버스 환경을 자연스럽게 연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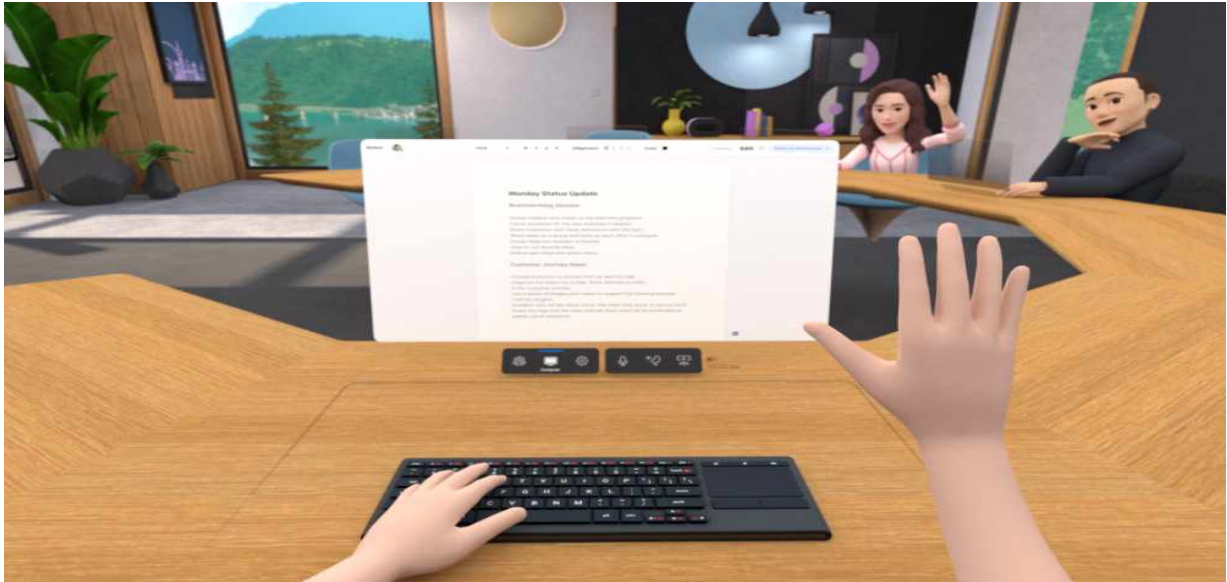
[그림] 현실의 데스크톱(좌), 워크룸으로 가져온 모습(우)



* 출처: <https://www.oculus.com/workrooms/features/>

- 핸드 트래킹 기술을 통해 손을 사용하여 가리키고, 타이핑하고, 엄지를 치켜올릴 수도 있어, 공존함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지원

[그림] 핸드 트래킹 기술이 적용된 모습



* 출처: <https://www.oculus.com/workrooms/features/>

② PwC와 로빈후드

- 글로벌 컨설팅 회계기업 PwC는 2021년 10월부터 영구 재택근무를 도입하고, 불가피한 오프라인 회의 회수도 제한³⁾
 - PwC는 고객 서비스 부문 근로자 4만 명 전원에게 영구 재택근무를 허용
 - 직원은 한 달에 최대 3회까지만 중요한 회의, 고객 방문, 직업교육 등을 이유로 오프라인 사무실 출근이 가능
 -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위한 방안이며, 외부에서도 파격적인 조치로 인식
 - * “고객 서비스 부문에서 재택근무를 영구화한 조치는 회계업계에서 최초이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뒤늦게 깨달은 교훈이고, 유연성의 진화를 생각할 때 당연한 조치”(실스 코필드 PwC 부대표)

3) Forbes(2021.10.2.), “PwC Announces 40,000 U.S. Employees Will Work From Home: How This Can Cause A Chain Reaction Of Companies Offering Competing Remote Options”

- *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회사 사무실에서 일하도록 격려하는 회계업계 관행을 보면 PwC의 조치가 파격적”(로이터 통신)

□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는 2022년 1월, 3,400명의 직원에게 영구 재택근무를 허가⁴⁾

- 로빈후드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가 있으며, 영구 재택근무를 통해 우수한 글로벌 인력을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 “지난 2년간 유연과 신뢰 덕분에 각 팀이 최선의 업무를 해낸 것은 물론 최고의 인재를 유치하고 더욱 포괄적이고 공정한 직장을 만들 수 있었으며, 직원들이 요청한 대로 원격으로 유연하게 일할 기회를 계속 제공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쁘다”(로빈후드 블로그 발표 내용 中)

③ 트위터와 Square

□ 트위터는 2020년 5월에 영구 재택근무 도입을 선언하고 코로나를 대비⁵⁾

- 트위터는 재택근무 경험을 토대로, 영구 재택근무의 가능성을 확인 후, 실행

- * “코로나19 사태 이전부터 탈집중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직원들이 회사를 떠나 세계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경험을 통해 그것이 가능함을 확인했고, 이제 원하는 직원은 앞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다”(잭 도시, 트위터 CEO)

- 트위터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물품, 네트워크 이용료와 어린이집 휴원과 등교 연기 사태에 따라 추가되는 자녀 돌봄 비용 일부도 지원

□ 트위터의 영구 재택근무 도입 결정 이후, 결제기업 Square의 CEO를 동시에 맡았던 잭 도시는 Square에도 같은 정책을 도입⁶⁾

4) Forbes(2022.1.12.), “Robinhood To Let Most Employees Work From Home Permanently”

5) The Guardian(2020.5.10.), “Twitter announces employees will be allowed to work from home ‘forever’”

6) Forbes(2020.5.19.), “After Announcing Twitter’s Permanent Remote-Work Policy, Jack Dorsey Extends Same Courtesy To Square Employees.”

3. 워케이션의 부상과 메타버스

-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상근무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다양한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이 등장하고 고도화되면서, 워케이션 업무 형태에 주목
- 워케이션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오랜 기간 휴가지에 머무르며 일하는 형태를 의미
- 코로나 장기화, 메타버스 활용 재택근무의 증가로 워케이션 활용 가치가 증대

- * “코로나19 이후 원하는 곳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워케이션 시대가 열릴 것”
- * “코로나 이후 아마존·포드·PwC 같은 수많은 기업이 영구적인 원격근무 제도를 발표했다. 근무 형태가 유연할수록 비용은 절감하고,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직원을 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 * “5일 출근할 필요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집을 떠나 어디서든 일할 수 있다. 실제로 3분기 에어비앤비 예약의 45%는 일주일 이상, 20%는 한 달 이상의 장기 숙박이었다.”(브라이언 체스키, 에어비앤비 CE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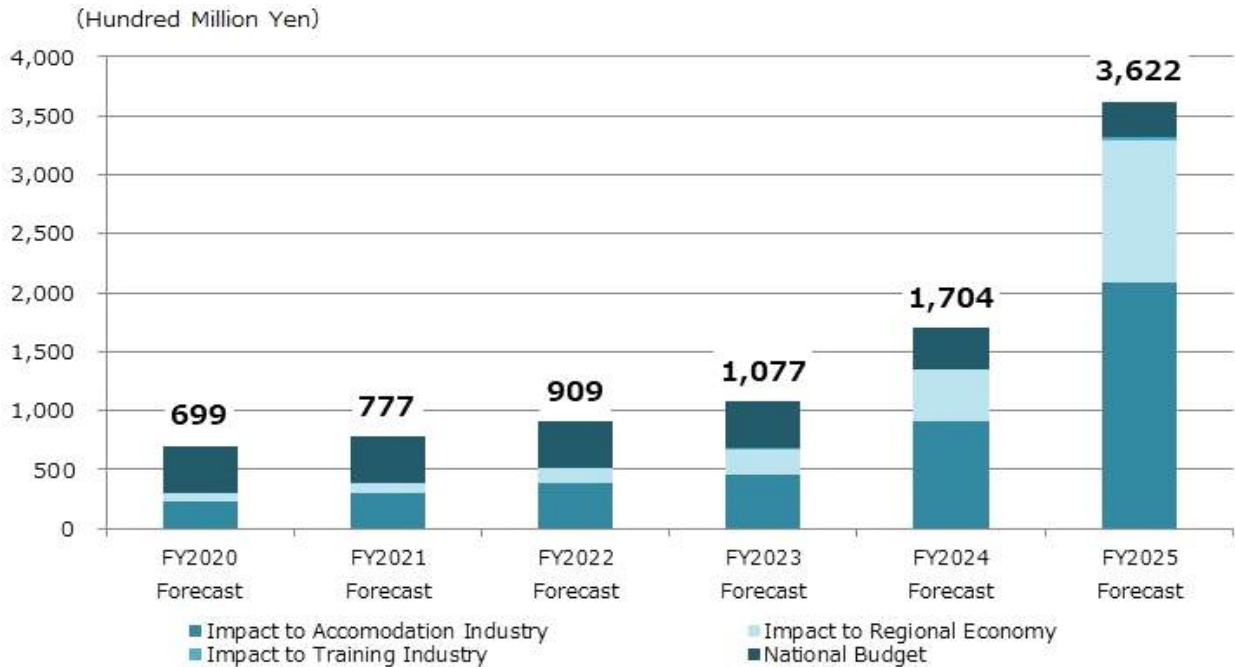
* 출처: 중앙일보(2021.11.11.), “이젠 워케이션 시대가 온다”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본 미래

- 워케이션은 코로나 이전 미국과 일본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업무 트렌드
 - 미국 캘리포니아 캠핑지인 타호 마운틴 랩의 경우, 여행자의 25%가 스키나 하이킹을 즐기면서 일하는 사람들⁷⁾
 - * 2014년 설립된 길이 35km에 달하는 타호(Tahoe) 호수는 1,896m 높이에 자리해 눈 덮인 봉우리들과 맑은 물로 유명한 명소
 - 일본에서는 워케이션 시장이 급성장 중이며, 일본항공(JSA)은 2017년 7월 1일부터 연간 최대 닷새간 해외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
 - * 일본 워케이션 시장 규모는 2020년 699억 엔(약 7,300억 원)에서 2025년 3,622억 엔(약 3조 7,700억 원)으로 5배 이상으로 성장 전망⁸⁾

7) Wall street Journal(June 23, 2015), “This Summer, How About a Workcation?: Growing number of employees are asking the boss for permission to combine work, vacation”

8) https://www.yanoresearch.com/en/press-release/show/press_id/2677

[그림] 일본 워케이션 시장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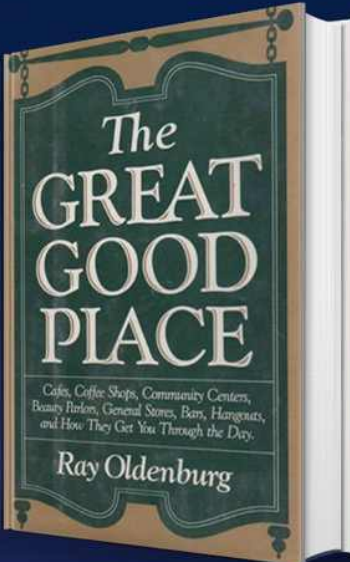


* https://www.yanoresearch.com/en/press-release/show/press_id/2677

○ 워케이션은 ‘제3의 공간’ 개념과 연관된 휴식과 재충전을 하며 일할 수 있는 곳

* 제3의 공간은 레이 올덴버그가 제시한 개념으로, 제3의 공간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비공식적 공공장소

[그림] 제3의 공간 개념



제3의 공간은 미국의 사회학자인 레이 올덴버그의 저서 'The great good place(1999)'에서 처음 말한 개념

1공간 : 우리가 살고 있는 집
 2공간 : 일하는 곳
 24시간 중 1,2 공간에서 대부분 사용

“제3의 공간은 휴식과 재충전을 할 수 있는
 편안한 비공식적 공공장소”

□ 업무 생산성 제고, 인재 관리 목적으로 워케이션을 도입

○ 워케이션으로 업무 생산성이 높아지고, 기업 소속 의식이 증대하며 이직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도 작용

- * 일본의 경우, 워케이션은 회사에 대한 애착과 소속 의식을 높이고, 워케이션을 실시할 때 업무성과는 20% 높아지고, 업무 스트레스는 37.3% 감소하였으며, 워케이션 종료 후에도 5일간 효과가 지속⁹⁾
- * 국내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직장인의 85.2%가 워케이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좋은 복지로 인식하고,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 직장인 10명 중 8명은 워케이션 도입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그림] 잡코리아의 워케이션 설문결과

직장인 85.2% 여행지서 일하는 워케이션 '긍정 평가'

| 자료제공: 잡코리아 (직장인 926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Q.가장 일하고 싶은 국내 휴양지는? (응답률)



JOBKOREA

* 출처: 잡코리아 조사 결과(2021.11.28.)

9) 중앙일보(2021.12.12.), “재택근무 지겹다고? 휴가지서 일하는 워케이션 어때요?”; NTT 경영연구소, JTB, 일본항공 워케이션 실험 효과

□ 지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위케이션이 추진

- 위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 지자체 협력, 특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

- * 2019년 위케이션을 도입한 유니레버 재팬은 지자체와 제휴하고 위케이션을 통해 지역 과제를 해결하는 등 CSR 추진 수단으로 활용¹⁰⁾
- * 강원도 관광재단은 2021년 3월 인터파크와 손잡고 ‘강원 위케이션 특화상품’을 기획한 후, 출시 2개월 만에 8,238박이 판매되었으며, 덕분에 비수기로 꼽히는 주중 숙박이 전년 같은 기간에 건줘 25% 증가

□ 국내 주요 대기업과 스타트업들도 위케이션에 주목하고 도입 중

- CJ ENM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일상화된 비대면 근무 환경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도에 거점 오피스를 운영하는 위케이션을 추진¹¹⁾

- * 제주도 거점 오피스에서 직원들은 본인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한 달간 장소만 바꾸어 그대로 수행하며, 제주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는 숙박비, 교통비 명목의 지원금 월 200만 원이 지급되며, 근무시간 외에는 자유로운 여가생활이 가능

[그림] CJ ENM 제주 거점 사무소



* 출처: CJ 블로그, “재택근무, 제주도에서 해보라” 제주소재 거점오피스 CJ 제주점, 위케이션 혁신시도

10) 중앙일보(2021.12.12.), “재택근무 지겹다고? 휴가지서 일하는 위케이션 어때요?”

11) CJ 블로그, “재택근무, 제주도에서 해보라” 제주소재 거점오피스 CJ 제주점, 위케이션 혁신시도

- 한화생명은 2021년 7월부터 리모트 워크플레이스(Remote Workplace)를 도입하여, 직원들이 새로운 장소에서 일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원

* 한화생명은 강원도 양양의 호텔에서 바다를 보며 일할 수 있도록 업무 환경을 조성하고, 일과 후에 요가, 명상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

[그림] 한화생명의 양양 리모트 워크플레이스



* 출처 : 한화그룹 블로그, 서핑 성지 ‘양양에서 한 달 살기’하며 일하는 회사가 있다? 한화생명의 새로운 근무 방식 리모트 워크 플레이스!

- 토스는 2021년 11월, 경상남도 남해군과 협업해서 유희공간 한 곳을 숙소 겸 사무실로 활용

* 토스는 팀원 7명을 파일럿(pilot) 형태로 2주간 함께 근무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했으며, 남해군은 토스와 같은 핀테크 기업을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청년 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토스는 직원들에게 쉬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

[그림] 남해에서 워케이션 중인 토스직원



* 출처 : 토스 블로그, 오늘은 바다로 출근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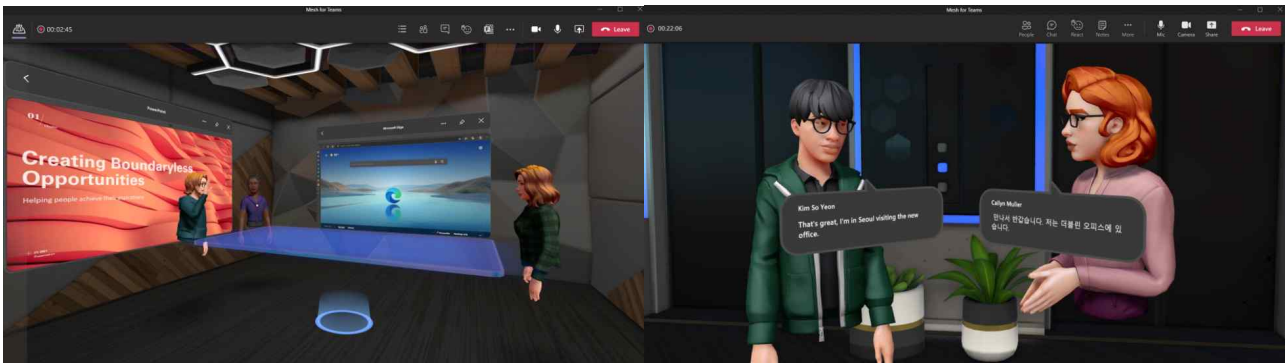
- 야놀자는 2021년 10월부터 일주일간 여행지에서 일하며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제도를 시행하고, 신청자에게 숙박과 식사, 차량을 지원
 - * 첫 워케이션은 일주일간 강원도 평창군에서 진행되며, 야놀자는 임직원들에게 업무 외 시간을 활용한 지역 관광을 장려하고, 강원도 관광재단과 협력해 워케이션 전용 상품을 개발
 - * 임직원들의 피드백을 반영해 대상 지역과 연계 관광상품도 지속 확대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계획

III. 시사점

- 메타버스가 일하는 곳으로 진화하며, 영구 재택, 워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하기 위한 필수요소로 자리매김
- 일하는 공간이 2D 인터넷에서 3D 기반 가상공간으로 진화하며, 현실에서의 공존감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이 등장
 - 기존의 줌(Zoom) 방식을 넘어, 메타폴리스, 컴투버스, 호라이즌 워크룸 등 다양한 메타버스 사무공간이 등장

- 마이크로소프트도 기존 팀즈를 메쉬 포 팀즈(Mesh for Teams)로 진화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예고
 - * 현재 전 세계 3.5억 명이 사용하는 팀즈를 진화시켜, 공존감과 몰입감을 느끼며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실시간 번역도 지원

[그림] 메쉬 포 팀즈(좌), 실시간 번역(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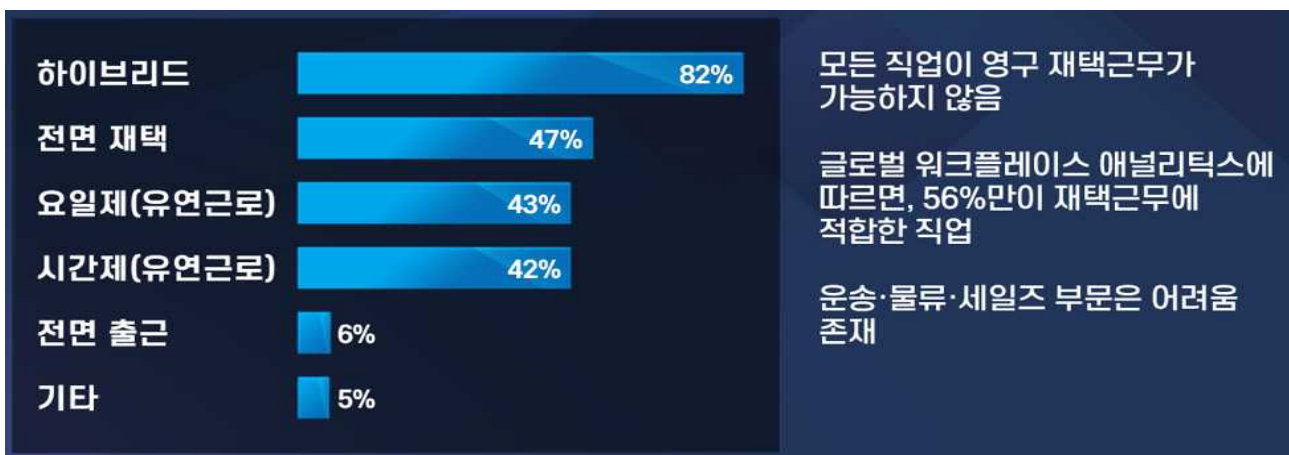


* 출처 : <https://news.microsoft.com/innovation-stories/mesh-for-microsoft-teams/>

- 영구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근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메타버스 업무 플랫폼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
 - 제3의 장소에서 업무효율을 높이기 위해 텍스트, 이미지, 영상 방식을 넘어서 가상공간에서 공존감을 느끼며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
- 메타버스 기반의 분산형 기업(Distributed Enterprise)이 증대하며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가속화 전망
 - * 가트너는 2022년 전략기술 트렌드 12가지 중 하나로 분산형 기업(Distributed Enterprise)을 선정하였는데, 원격 및 하이브리드 근무 형태가 늘어나며, 기존 사무실 중심 기업이 지리적으로 분산된 기업으로 변화한다는 의미
 - * 2023년에는 분산형 기업의 75%가 경쟁사보다 25% 빠른 매출 성장 실현 예상
- 기업은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근무 형태의 장점을 살리고, 문제점을 파악 및 보완하여 일하는 방식의 변화 방향을 모색할 필요
 - 메타버스에서 100% 일하는 방식부터, 부분적으로 다양한 제도와 함께 도입하는 방식까지 메타버스를 업무에 활용하는 범위는 매우 다양

- 메타버스 근무의 단점에 대한 인식 및 보완이 필요
 - 메타버스를 활용한 영구 재택근무, 워케이션 등으로 기업은 임대료 감소, 글로벌 우수 인재 유치 등 장점이 있으나, 근태관리 복잡성, 인사평가 곤란, 도입 비용, 보안 등 다양한 문제도 존재
 - 또한, 업무에 묶여 있다는 압박감, 일에 대한 회피, 건강 문제 등에 대한 부작용도 함께 고려하여¹²⁾ 이를 반영한 목표관리와 건강관리 지원 방안을 검토
- 산업과 기업의 특성,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방식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사에 최적화된 메타버스 시대의 일하는 방식을 모색할 필요

[그림] 미국 경영진이 본 최적 근무 방식



* 출처 : 가트너 조사 결과(임원 129명 대상 설문, 복수 응답), ; 매일경제(2021.08.10.) 미 빅테크 “코로나 끝나도 전면 출근 없다”

- 메타버스 시대, 일에 대한 직원들의 선호 파악도 중요한 요소
 - * 설문 응답자의 65% 사람들은 메타버스 출근을 희망하고 있으며(‘21,서울시 여성 능력개발원 조사 결과), 오프라인 출근을 하면서 연봉 3만달러를 인상하는 것보다 메타버스로의 출근을 희망하는 사람이 64%(‘21.블라인드 조사결과)
 - * 워케이션 도입 기업으로 이직할 의향이 있는 사람은 84%(‘21, 잡코리아 조사결과)

12) Dr. KDV Prasad et al (2020), Organizational Climate,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emote Working Employees during COVID-19 Pandemic: A General Linear Model Approach with Reference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n Hyderabad,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ume 11, Issue 4, April 2020, pp. 372-389

- 정부는 메타버스 생태계 선도와 함께 민관협력, 위케이션 도입 기업 지원, 제도개선 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방안을 모색
 - 메타버스로 출근, 위케이션 확산은 관광숙박 수요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또한, 메타버스 출근으로 어느 지역에서도 근무할 수 있어 지역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 지역 메타버스 인프라 구축, 지자체 협의회 구성, 민관협력을 통해 메타버스 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방안을 검토
 - 가상사업장에 대한 납세지 지정 등 ‘메타버스에서 일하는 시대’에 적합한 제도 개선 이슈를 발굴하고 모니터링을 강화
 - 현재 물리적 장소를 기준으로 납세지가 결정되어 가상에만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 주소지를 유료로 임대하는 등의 불편이 존재
 - * “법인세 납부 때문에 사무실을 완전히 없애는 혁신은 어렵다. 필요 없는 사무공간을 어쩔 수 없이 다시 구해야 했다”(직방 관계자)¹³⁾
 - *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① 내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그 법인의 등기부에 따른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소재지¹⁴⁾로 한다.
 - 망 분리 규제로 인해 금융 분야 직원들의 재택근무 범위에 한계가 존재
 - * 금융사, 전자금융업자(핀테크업체)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을 인터넷 등 외부 통신망과 분리·차단해야 하며 금융사의 IT 관련 일부 업무는 외부에서 처리가 어려움

13) 한국경제(2.22.02.16), “사옥팔고 전면 재택 나선 직방, 다시 사무실 구한 사연”

14) 국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의 소재지

참고문헌

1. 참고문헌

- 범부처(2022), “메타버스 신산업 선도전략”.
- 매일경제(2021.12.21.), “대기업 최초로...OCI, 메타버스 사무실 도입”.
- 매일경제(2021.08.10.) 미 빅테크 “코로나 끝나도 전면 출근 없다”.
- 중앙일보(2021.11.11.), “이젠 워케이션 시대가 온다” 에어비앤비 창업자가 본 미래.
- 중앙일보(2021.12.12.), “재택근무 지겹다고? 휴가지서 일하는 워케이션 어때요?”
- CJ 블로그, “재택근무, 제주도에서 해보라” 제주소재 거점오피스 CJ 제주점, 워케이션 혁신 시도.
- 한화그룹 블로그, 서핑 성지 ‘양양에서 한 달 살기’하며 일하는 회사가 있다? 한화생명의 새로운 근무 방식 리모트 워크 플레이스!.
- 토스 블로그, 오늘은 바다로 출근합니다.

2. 국외문헌

- Dr. KDV Prasad et al (2020), Organizational Climate, Opportunities, Challenge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Remote Working Employees during COVID-19 Pandemic: A General Linear Model Approach with Reference to Information Technology Industry in Hyderabad, International Journal of Advanced Research in Engineering and Technology, Volume 11, Issue 4, April 2020, pp. 372-389
- eXp Reality(2021), “An Introduction to eXp Reality”
- Forbes(2021.10.2.), “PwC Announces 40,000 U.S. Employees Will Work From Home: How This Can Cause A Chain Reaction Of Companies Offering Competing Remote Options”
- Forbes(2022.1.12.), “Robinhood To Let Most Employees Work From Home Permanently”
- Forbes(2020.5.19.), “After Announcing Twitter’s Permanent Remote-Work Policy, Jack Dorsey Extends Same Courtesy To Square Employees.”
- The Guardian(2020.5.10.), “Twitter announces employees will be allowed to work from home ‘forever’”
- Wall Street Journal(June 23, 2015), “This Summer, How About a Workcation?: Growing number of employees are asking the boss for permission to combine work, vacation”

3. 기 타

- <https://career.zigbang.com/work>
- <https://www.youtube.com/watch?v=xXxkWu6wGBs>
- https://www.youtube.com/watch?time_continue=1&v=C_2AJ97rnPw&feature=emb_logo
- https://www.glassdoor.com/Award/Best-Places-to-Work-LST_KQ0,19.htm
- <https://www.oculus.com/workrooms/features/>
- <https://www.youtube.com/watch?v=0z2pjJTVa5w>
- https://www.yanoresearch.com/en/press-release/show/press_id/2677
- <https://news.microsoft.com/innovation-stories/mesh-for-microsoft-teams/>

주 의

이 보고서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결과임을 밝혀야 합니다.



메타버스, 일하는 방식을 바꾸다

Metaverse, Changing the Way of Work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712번길 22 글로벌 R&D 연구동(A)

Global R&D Center 4F 22 Daewangpangyo-ro 712beon-gil, Bundang-gu, Seongnam-si, Gyeonggi-do

www.spri.kr

ISSN 2733-6336